

롯데칠성 광주공장 생산 중단… 끝내 문 닫는다

노조와 협의 거쳐 폐쇄 시점 결정…지역 경제 ‘타격’

사측 “생산거점 효율화”…직원들 타 공장 전환 배치

수십여년 간 광주지역 제조업의 한 축을 지탱해 온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이 끝내 문을 닫는다.

7일 롯데칠성음료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6개 공장 중 광주와 오포에 있는 2개 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광주공장은 지난 1984년 호남지역

의 음료·주류 공급을 전담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2개의 생산 라인을 번갈아 운영하며 하루 24여만 음료 캔과 12만여병의 주류 제품 생산하고 있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전사적 생산거점 효율화를 위해 공장

폐쇄와 전환배치를 추진했다.

광주공장 등의 정확한 폐쇄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추후 공장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포함 19명의 직원은 폐쇄되지 않는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전환 배치된다.

또 사측은 전환 배치될 공장 등에 대해서는 직원 희망을 반영, 정해지고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이주비, 귀향(교통)비, 사택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광주공장 등

폐쇄는 구조조정이나 지역 이탈이 목적이 아니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생산거점 효율화의 일환이다”며 “광주공장 생산시설에 한정된 운영 중단이지 영업지점, 물류센터 등은 지역에 남는다”고 전했다.

반면, 노조 측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대부분이 지역민으로 ‘삶의 근거지를 빼앗긴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장 폐쇄에 대해 사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사항이 전혀 없다. 관련 결정으로 지역 노동자들이 남아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칠성 광주공장의 폐쇄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경제에 타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주공장은 타 지역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보관한 뒤 광주·전남지역 판매점으로 공급하는 창고 역할을 하며 물류 및 영업 분야 등 수백여명의 고용거점 역할도 맡아왔기 때문이다.

또 광주공장이 단순 생산기지가 아니라 신제품 파일럿 생산, 소량 다품종 생산, 초기 품질 안정화 등 대형 공장에게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에 지역 정·경제계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단기·중기·장기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단순한 공장 구조조정을 넘어 지역 산업 기반과 일자리에 미칠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폐쇄 저지 노력과 함께 불가피할 경우 산업 기능 재편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생산시설의 지방 이탈이 반복될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약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세계 최초 ‘130형 마이크로 RGB TV’ K팝 아티스트 라이즈(RIIZE)가 CES 2026 삼성전자 ‘더 퍼스트룩’ 단독 전시관에서 세계 최초 ‘130형 마이크로 RGB TV’를 소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에코바디스 2년 연속 ‘골드’ 메달 획득

KUMHO TIRE

글로벌 ESG 경쟁력 입증…한국기준원 평가서도 A등급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ESG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역량을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에서 2년 연속 골드(Gold) 메달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조달 등 4개 영역에 대해 정책, 활동, 인증 등을 종합 평가한다.

2024년 금호타이어는 전세계 약 15만개 평가 참여기업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골드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또 금호타이어는 한국ESG기준원 2025년 ESG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 2025년에는 특히 인권 관리체계 구축, 임직원 다양성 목표 수립, 정보보호 투자 강화, 이사회 평가 실시 등의 경영 개선을 통해 전년비 통합 1등급 상향됐다.

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는 2022년부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지속 참여

하며 2025년에는 수자원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A-등급을 획득했다. 공급망 참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 리스트에 선정되어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ESG관리 성과를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지수 타이어 부문 3년 연속 1위, 지속가능성보고서 상재조 부문 2년 연속 우수보고서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정승기 기자 sky@

KT 이탈 일주일만 10만명… “위약금 면제 여파”

6일 하루에만 2만8444명 떠나

이탈 고객 10명 중 6명. SKT로

과열조짐에 방미통위 현장점검

KT가 가입 해지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3만명 가까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간 지원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누적 기준으로는 KT를 떠난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은 총 10만749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7일 하루 이탈자 수는 2만8444명으로 1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일요일 개통분이 함께 반영된 지난 6일(2만6394명)보다 많은 수치다.

이날 KT를 이탈한 고객 중 1만7106명은 SK텔레콤으로 향했고, 7325명은 LG유플러스, 4013명은 알뜰폰(MVNO)로 이

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KT가 위약금을 면제한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합산하면 KT를 떠난 가입자수는 누적 10만749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으로 간 가입자는 6만8834명(64.03%),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2만5152명(23.40%), 알뜰폰은 1만3513명(12.57%)이다.

KT 위약금 면제 기간이 오는 13일까지로 예고된 가운데, 이동통신사 간의 고객 유치를 위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KT 이탈 고객을 유치하려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이를 방어하려는 KT의 노력이 맞물리면서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특정 통신사를 겨냥한 문구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가 하면, 다른 판매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현금을 얹어주는 이른바 ‘차비’까지 제공해 혼란을 낳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35)는 “최근 KT에서 타 이동통신사로 바꾸려하는 고객들이 눈

에 띄게 많이 늘었다”며 “7년째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3사 모두를 취급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고객들의 통신사 변경이 많았던 적이 없었다. 실제로 변경하는 추이도 많지만 문의를 하는 고객은 평소보다 3배 이상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3사 모두 해킹으로 논란이 되긴 했지만 최근에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게 가장 큰 변수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부터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유통망에서 경쟁사 비방과 소비자 오인·마케팅이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방미통위는 일부 유통망에서 경쟁사를 겨냥한 비방 광고와 함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판매 행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안내하면서 실제로는 카드사 할인 혜택에 그치거나, 할인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도록 약정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방식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김은지 기자 nozyb@gmail.com

광주경총 병오년 첫 조찬포럼 강사는 강기정 시장

내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올해 시정방향 주제

병오년 새해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금요조찬포럼의 첫 강사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출격한다.

광주경총은 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초청해 ‘2026년 광주시 시정 방향’을 주제로 제1708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부수석으로 임명돼 참여정부 이후 1년 8개월 최장수 정부수석을 지냈다. 또 광주시는 올해 빛의

혁명·부강한 광주 도약 사업이 대거 반영돼 전년 대비 5639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49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올해 광주시가 국비 최우선 과제로 둔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용역비 6억원, 규제프리 AI실증도시 실현 용역비 5억원, AX 실증밸리 조성(정부안 240억원·국회 추가 56억원),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192억원, GIST 부설 AI영재학교 설립비 31억4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이러한 결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양부



남·민형배·박균택·정준호·전진숙·안도걸·정진욱·조인철 등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시 시정 방향에 맞춰 병오년은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 자세로 현재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도약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광남일보 제14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 모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새로운기회를 만드십시오.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석식 제공)

강의장소 | 추후 결정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 3월~7월 / 2학기 :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ibo2@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충효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 분야주임)



김동규
성악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연구위원
<트렌드코리아> 공저자

광남일보

